



강원지역 산업보건을 위한 연대 2026년 강원중부보건관계자 워크숍

지난 4월 21일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에서 2026년 강원중부보건관계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강원중부 보건관리자 협의회,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산업 안전보건 정책 방향 공유와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 등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한 자리였다.

글 고정 사진 김재이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슬로건 선포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강원 지역 산업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사회는 강원중부보건관리자 협의회 박소연 회장이 맡았으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강원중부보건관리자 협의회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강태관 강원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산업보건과 관련한 어려운 부분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보건 관계자분들이 모두 모인 오늘 워크숍 역시 분명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윤희 부장은 “최근 보건 환경에 대한 여러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두 함께 고민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까지 와주신 만큼,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참석자들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슬로건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선포식도 진행되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과 감정 노동에 대한 논의

이날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과 오기학 감독관의 ‘2026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발제로 시작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CCTV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관한 질문이 질의응답 시간에 쏟아졌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법이 모호하게 개정될 경우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실제 법제화 전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부 송선희 차장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 발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감정 노동,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 문화 등 다양한 감정 노동 관련 이슈들이 소개됐다. 오후에는 힐링프로그램 ‘나만의 감정응급키트(롤온) 만들기’가 진행됐다. “평소 직원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프로그램 진행자 강원중부보건관리자 협의회 박소연 회장의 말처럼 참석자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강원지역 보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한 이번 워크숍은 강원중부보건관리자 협의회 총회와 함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